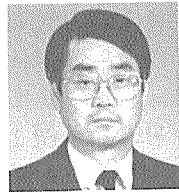


· 부주의와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 !

전자오락 발작 사건이 준 VDT증후군 예방의 교훈



송 병 오

우리나라의 50이 넘는 세대에게 있어 지난 어려웠던 시대의 잊지 못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보릿고개’와 ‘문맹’이라는 말일 것이다.

‘보릿고개’가 우리의 어려웠던 지난 시대의 경제수준을 대변한 것이라면 ‘문맹’이란 말은 낮은 학력과 낙후된 교육환경을 나타낸 말이었다. 특히 문맹이란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교육에 대한 한(恨)을 남겨 오늘날과 같은 과열된 대학입시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과정 상에

있어 ‘보릿고개’나 ‘문맹’이란 말 대신에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말인, 대중화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한다해서 나온 ‘컴맹’과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과소비를 일삼는 젊은 부유층을 지칭해서 나온 ‘오렌지족’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한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도 전자오락 게임을 하다 불규칙하게 깜박이는 빛에 자극을 받아 발작을 일으키는 “光 과민성 간질환자”가 미국, 일본 등에 이어 발견되어 커다

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전자오락 게임기의 이름을 따서 일명 『닌텐도(任天堂)증후군』이라고 불리웠던 이 발작증후군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발작소인(發作素因)을 가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최근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증후군이 발견되고 있다는 또 다른 보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월말 6세된 한 유치원생이 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데 이어 2월엔 전남 보성에서도 光 과민성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급기야 보건사회부가 진상조사에 나섰고, 일부 가정에서는 학부모들이 전자오락 게임을 하는 자녀들의 게임 오락기를 빼앗는다거나 오락실의 출입을 금지케 하는 등의 소동을 겪기도 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정용 전자오락게임기가 2백만대, 소프트웨어가 6백50만대 가량 보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평균 4가구당 1가구가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피해는 새로운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지켜보면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려는 현대산업의 발달로 보편화되어 가는 사무자동화의 추세 속

에서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단말기(VDT) 작업의 피해 예방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나는 점이다.

컴퓨터 단말기(VDT)는 현대의 작업양식이 직접 손으로 하는 수작업에서 기계화로 진전됨에 따라 직장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전자공학분야의 발달과 함께 산업현장 및 일반 가정에까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작업형태의 변모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컴퓨터단말기 조작작업의 종사 기회를 확대시켜 작업능률은 향상되었으나 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가 흔히 다루는 컴퓨터 단말기에 의해 일으킬 수 있는 건강장애로는 높은 휘도의 화면주시, 영상의 깜박거림,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시각기능의 저하와 부적

절한 작업자세, 키보드의 높이 및 위치의 부적합에 의한 경견완장해, 단순작업, 연속작업 등으로 인한 두통 및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해율과 매년 13만 여명에 달하는 산업재해자, 2천3백 여명의 산재사망자, 1천5백 여명의 직업병 근로

자 등 산재다발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단말기 조작 작업에 대한 관리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과 구속력이 없는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스웨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작업기준을 법적으로 채택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한 권고기준으로 작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 단말기의 장시간 조작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두통, 요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에 걸쳐 노출되어 왔던 안전·보건에 대한 건강의 위협을 하루 아침에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만병통치약식의 모색 또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자 오락 게임에 의한 이른바 『닌텐도(任天堂)증후군』 상태를 교훈삼아 가정용 컴퓨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물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산업현장 및 사무실의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단말기 조작 작업의 건강예방

그러므로 산업현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안전의 생활화와 이를 통한 안전문화(安全文化)의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

〈필자=한국산업안전공단
홍보사업부장〉

• 4월은 보건의 달 •

건강이 재산이다 건강일때 건강관리

• 한국건강관리협회 •